

12 종합

이수병 50년의 질문...멈춘 새벽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1975년 4월 9일, 유신 정권의 폭력 아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故 이수병(정치외교학 1958) 선생. 그로부터 꼭 50년이 지난 5일, 정경대학 한 강의실에서 이수병 선생의 삶을 기리는 50주기 추모식과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현장에는 유가족, 동문, 추모 연대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인을 기리는 추모 영상 상영과 '고령(苦嶺) 이수병 장학금' 수여식, 민주평화동산 현화가 이어졌다. 행사가 열린 정경대 303호 강의실에는 '고령 이수병 강의실'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롭게 걸렸다. 고령의 헌신을 잊지 않고 높은 뜻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식이 강력한 무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배후로 체포돼**

이 선생과 우리학교의 인연은 1958년 정치외교학과에서 시작됐다. 이 선생은 진정한 지식이란 사회를 변혁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다. 모든 신문을 낱자별로 정리해가며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길을 고민했다.

이 선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온화한 인물로 기억된다. 박중기 전 이수병 추모연대 의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허’ 웃으며 넘기던 따뜻한 사람”이라며 “심욕을 좇지 않고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고 회고했다.

1960년 4월,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이 선생을 행동으로 이끌었다. 전국으로 번진 4월 항쟁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후에는 민족통일운동에 헌신하며 연대의 가치를 설파했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들어서자 이 선생은 점차 감시 대상이 됐다. 사회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에 힘쓰던 그는 1974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과 함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사법 살인’의 새벽
언론통제로 진실 규명 늦어**

이 선생은 고문과 강압 수사 속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 법정에서는 제대로 된 항변 기회를 얻지 못했



① 이 선생이 살아냈던 삶의 궤적은 지금도 법과 권력,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사진 출처=4.9인혁재단) ② 지난 5일, 정경대 303호 강의실에는 '고령 이수병 강의실'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롭게 걸렸다. ③ 경희평화민주동산 개나리 꽃 사이 이 선생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하시언 기자)

다. 그렇게 이 선생을 포함한 8명에게 사형이 확정됐고, 이들은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1975년 4월 9일 새벽,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선생은 당시 38세였다. 유신 정권 하 국가 권력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이 완전히 무시된 ‘사법 살인’이었다.

이 선생의 부인 이정숙 여사는 남편이 처형당한 이후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 이 여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교회 같은 곳에 가서라도 진실을 외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아픔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전했다. “자식을 보더니 ‘아휴, 많이 컸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곧바로 간수한테 끌려갔죠. 그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32년 만의 무죄
고령의 뜻 이어져**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에게 당시 심경을 묻자 그녀는 “반반이예요”라고 했다. “사람을 그렇게 죽

여놓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령 이수병 장학금’은 2009년부터 선생의 국가배상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유족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 총 64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고령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50년 전 멈춘 새벽의 시간
오늘날에도 이어져**

2025년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이 선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당시 국가 폭력의

그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 진실이 은폐되고 법의 이름으로 생명이 박탈되었던 그 새벽은 역사로만 남지 않았다.

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가 살아냈던 삶의 궤적은 지금도 법과 권력,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50년 전 멈춘 듯했던 그 새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이수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